한국,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아르헨·나이지리아와 B조

허정무호 "16강 가능하다"

'기대했던 최상의 결과는 아니어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

한국 축구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목표로 한 사상 첫 원정 16강 고지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죽음의 조'에 들지 않아 조별리그 통과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5일(한국시간)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국제컨벤센터에서 열린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그리스와 같은 B조에 편성됐다.

조 추첨 결과를 놓고 보면 '죽음의 조'로 분류되는 D조의 독일, 호주, 세르비아, 가나를 피한 건 다행이다.

북한이 속한 G조의 브라질, 포르투갈, 코트디부아르나 일본이 짜인 E조의 네덜란드, 덴마크, 카메룬보다 상황이 괜찮다. 이와 함께 그리스-아르헨티나-나이지리아와 차례로 조별리그를 치르는 대진도 나쁘지 않다.

조별리그 상대 중 '약체'로 꼽히는 그리스를 반드시 잡고 아르헨티나 또는 나이지리아 중 한 팀에 이기거나 모두 비긴다면 16강 꿈을 이룰 수 있다.

내년 6월12일 프리토리아의 넬슨만델라 베이 스타디움에서 맞붙는 그리스는 세 팀 중 그나마 만만한 상대다.

그리스는 2004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정상에 오르는 '그라운드 반란'을 일으켰지만 월드컵 유럽예선에서는 본선 직행 티켓을 스위스에 내주고 2위 플레이오프를 거쳐 와일드카드로 남아공 본선 무대를 밟았다.

두 번째 상대인 아르헨티나는 톱시드를 받은 남미축구의 강호다. 1978년 아르헨티나 대회와 1986년 멕시코 대회 등 두 차례나 월드컵을 제패한 전통 강호이고 FIFA 랭킹도 8위로 한국(52위)보다 무려 44계단이나 높다.

마라도나 감독이 이끄는 아르헨티나는 남미예선 4위로 턱걸이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본선 직행 티켓을 얻었지만 '마라도나의 재림'으로 불리는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 카를로스 테베스(맨체스터 시티) 등 화려한 개인기를 자랑하는 스타 선수들을 보유했다. 한국과 역대 상대전적에서도 네 번 싸워 한 번도 지지 않고 1무3패로 '천적' 역할을 했다.

아르헨티나와 2차전은 해발 1천750m에 있는 요하네스버그의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다는 점이 승부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마지막에 맞닥뜨리는 나이지리아도 쉽지 않은 아프리카의 복병이다. FIFA 랭킹 22위이고 아프리카 예선에서 3승3무의 무패 행진으로 튀니지를 따돌리고 본선에 직행했다. /연합뉴스

나이지리아에 역대전적 앞서고 그리스는 약체 꼽혀

북한, 브라질·포르투갈·코트디부아르와 G조 '최악'

"맞춤 전략으로 16강 뚫겠다"

허정무감독 귀국

축구 대표팀 허정무 감독은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조추첨 결과와 관련해 "남은 6개월간 상대에 따른 맞춤형 전략으로 준비하겠다"라고 6일 밝혔다.

전날 새벽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조추첨 행사에서 참석한 뒤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허 감독은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악은 피했지만 최상도 아니다. 결국은 얼마나 상대팀에 대해 준비하느냐에 달렸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감독은 "유럽이 두 팀이 같은 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한 팀(그리스)만 돼 수정이 필요하다"라면서 "나이지리아는 다음달 네이션스컵에서 중점적으로 볼 것이고,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도 충분히 대비히야 한다. 완전히 이길 수 있는 팀도 없지만, 못해 볼 팀도 없다"라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는 16강을 낙관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난다. 그리스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 같지만 그리 쉽게 잡을 수 있는 팀이 아닌 만큼 낙관할 수 없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내고, "나이지리아나 그리스도 우리를 제물로 삼아야 2라운드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허 감독은 자신이 선수로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와 맞붙은 지 24년 만에 재대결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는 "당시 32년 만에 본선에 올라가 경험이 없었고,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힘 한번 못써봤지만 이번 만큼은 충분히 대비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국 뺀 아시아팀 '죽음의 조'

日·北·濠 16강 전망 '흐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 지역 국가가 속한 그룹이 모두 '지옥의 조'로 거론되고 있다.

5일 국제축구연맹(FIFA) 조 추첨 결과에 따르면 일본은 E조에서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불굴의 사자' 카메룬, 북유럽의 대표 강국 덴마크와 함께 묶였다. 네덜란드는 잘 알려진 대로 선수들이 모두 체격과 스피드가 뛰어난 데다 짜임새 있는 조직력까지 갖춰 누구나 만나길 꺼리는 팀이다. 월드컵 유럽 예선의 전적은 8전 전승. 카메룬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아프리카 최초로 8강에 진출한 팀으로 선수 대다수가 잉글랜드, 독일, 프랑스 등 유럽파로 구성돼 이번 성적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덴마크도 선수들이 빅리그나 네덜란드에서 뛰고 있으며 월드컵과 인연이 3차례밖에 없었으나 스웨덴과 함께 북유럽의 강국으로 꼽힌다.

북한은 한 술 더 떠 역대 최다인 5차례 우승에 빛나는 '삼바군단' 브라질, 디디에 드로그바를 데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협적인 코트디부아르, 2006년 독일월드컵 4강 진출팀 포르투갈과 함께 G조에 편성됐다.

브라질은 '하얀 펠레' 카카(레알 마드리드) 등 호화 스타들을 보유한 영원한 우승 후보이다. 또 코트디부아르는 아프리카의 신흥 강국으로 세계에서 이들을 무시할 수 있는 국가가 별로 없어 포르투갈마저 불의의 일격을 경계해야 할 처지다.

D조에서는 '사커루' 호주가 '전차군단' 독일, 동유럽의 복병 세르비아, 아프리카 전통의 강호 가나와 맞붙게 됐다. 독일은 월드컵과 유럽선수권을 3차례씩 우승한 '월드 클래스'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준우승, 2006년 독일 월드컵 3위로 토너먼트 승부에 강한 우승 다크호스다. /연합뉴스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챔피언결정전 전북 현대와 성남 일화의 경기에서 전북이 3대1로 승리해 우승을 확정했다. 경기 후 전북 현대 선수들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 창단 15년만에 첫 우승

K-리그 챔피언 결정전 2차전서 성남 3-1 꺾어

전북 현대가 창단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이 됐다.

전북은 6일 오후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쏘나타 챔피언십 2009 챔피언결정 2차전에서 전반 에닝요의 두 골과 후반 이동국의 페널티킥 추가골로 김진용이 한 골을 만회하는 데 그친 성남 일화를 3-1로 눌렀다. 지난 2일 원정경기로 치른 1차전에서 0-0으로 비겼던 전북은 1, 2차전 합계 전적에서 1승1무로 앞서 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1994년 전북 다이노스라는 이름으로 창단해 이듬해부터 K-리그에 참가한 전북이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리그 최다 우승팀(7회) 성남은 6강 플레이오프부터 연승행진을 벌이며 통산 8번째 우승 희망을 부풀렸지만, 결국 정규리그 1위 전북의 벽은 넘어서지 못했다. /연합뉴스

한국 女골프, 3년만에 日 제압

한일대항전 우승…송보배 MVP

한국 여자프로골프가 일본과 실력 대결에서 우위를 보이며 3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한국은 5일 일본 오키나와현 난조시 류큐골프장(파73·6천550야드)에서 열린 교라쿠컵 제10회 한일여자프로골프대항전 이틀째 경기에서 4승1무7패로 뒤졌지만 전날 성적(10승2패)을 더해 최종 성적 14승1무9패, 승점 29-19로 이겼다.

이로써 한국은 역대 전적에서 5승1무3패로 계속 우위를 이어가게 됐고 2006년 이후 3년 만에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 최우수선수(MVP)에는 첫날 7언더파 64타의 맹타를 휘두른 데 이어 이날도 한국의 우승을 확정 짓는 승리를 따낸 송보배가 선정됐다.

송보배에게는 상금 100만 엔이 주어진다. /연합뉴스

양용은 공동선두 셰브론월드챌린지 3R

고열에 시달리고 있는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이 골프황제 우즈가 차려놓은 잔칫상에서 화려하게 시즌을 마무리할 기회를 잡았다.

양용은은 6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우전드오크스의 셔우드 골프장(파72·7천27야드)에서 열린 셰브론월드챌린지 골프대회 3라운드에서 1타를 줄여 중간합계 10언더파 206타를 적어냈다.

교통사고 뒤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있는 대회 주최자 우즈 대신 출전한 그레임 맥도웰(북아일랜드)이 6타를 줄이며 치고 올라와 양용은은 전날 단독 선두에서 공동 선두로 내려앉았다. /연합뉴스

남성성기능강화제

본 성기능 강화제는 화분, 왕라, 복분자, 구기자, 갈근 등 20여 가지의 한약재로 제조하였으며 특히 왕라는 허브의 일종으로 자양강장역할을 하여 다미아나 혈관과 호르몬제의 도움이 된다는 위상실험결과가 있고 단백질을 저장하는 힘을 돋구어 근육을 강하게 해준다는 뮤쿠나프리인스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활히 공급하므로써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줍니다.

화분의 효능이란? 생식세포를 말하는 것으로 식물이 가진 영양성분이 집약된 것입니다. 화분속에는 22종의 아미노산, 27종의 무기질, 18가지의 비타민 등 약 185종의 영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체내에서 합성이 어려워 체외로부터 섭취해 주어야만 하는 필수 아미노산을 화분속 단백질이 모두 함유하고 있는 풍부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한알 복용으로 1~5일까지 효과를 볼 수 있음

섭취방법 및 제품특징

▶평소에 발기는 되나 지속성이 없거나 조루가 있는 분들은 성관계 약1시간 전에 1정을 복용하면 1~5까지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발기가 전혀 안되시는 발기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1일 1정을 3~7일 정도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발기가 잘되며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정을 복용 후 너무 발기가 강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1/2정(반) 나누어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확인하세요.

※주문즉시택배 / 무료배송

상담주문 010-7770-8138

농협 302-0136-6325-61(권옥연)

동북아 경제 중심지.. 서해안, 새만금을 주목하라!

새만금~변산~고사포~격포~상록~모항 해수욕장 까지의 투자 벨트 형성

○검증된 추천 물건○

• 상록해수욕장이 보이는 펜션부지
1200평(전) - 평당 70만원(2~300평 분할가능)
470평(답) - 평당 150만원(상가 및 펜션,분할가능)
• 격포 바닷가, 펜션, 모텔부지
500평 - 평당 180만원(대,전,모텔,1동 포함)
• 전원주택 및 투자부지
1000평 - 평당 25만원(답)
600평 - 평당 30만원(답)
500평 - 평당 60만원(부안댐 앞,주택1동포함)
- 투자물건 다량확보중(소액부터 다액까지)

*새만금 관광시대 임박으로 팬션 투자시, 광주지역 원룸부지의 절반 금액으로 수입은 3배이상, 금리는 년 25%이상 보장되는 물건만 취급
*2010년초 방조제 개통으로 지금이 투자 적기
*오랜 실무경험으로 매입에서 매도까지 책임중개

서해안·새만금 지역 전문 중개업소
보임부동산투자개발
상담환영 : 062-527-8844/010-8004-5900/016-609-5888

대표:성 봉 규 (법원공동번호 16-07-29)
·전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전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제8대 총원우회장
·(주) 시민법인 광주이카데미 공동대표
·전 경상남 재판위원장
·전 사법주경찰서 자문위원장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장
·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사
·전 355-B1지구 전남B1아이스스틸 33대회장
·현 355-B1지구 지대위원장

해령법률경매
T:062)430-7117 H.P:011-629-0827 김팀장 위치:법원정문앞

근린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전/대(㎡)	감정가	최저가
동구	지산동	2671/827	12억2천	8억8천
남구	월산동	217/148	3억1천4백	2억2천
서구	양동동	221/151	4억8천	3억5천
북구	두암동	1470/2473	37억8천만원	19억2천만원
나주시	성북동	172/304	3억8천	1억4천
화순군	춘양면	101/76	1천6백만원	1천5백
장성군	북일면	2880/294	1억8천5백	3억2천
함평	법성	373/617	4억4천	3억8백

근린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전/대(㎡)	감정가	최저가
북구	운암동	538/1583	12억8천	6억8천7백
서구	치평동	282/949	8억1천	5억7천
남구	월산동	182/744	2억4천	1억8천8백
동구	남동	421/1129	13억4천2백	8억
나주시	남내동	650/272	5억1천	3억8천
장흥군	삼계면	411/1647	6억5천	4억5천5백
함평군	월야	3054/1165	8억9천	2억7천
	수북면	863/876	4억1천8백	2억3천4백
강진군	대강면	268/281	2억5천	1억8천
목포시	산정동	178/814	5억8천4백	4억
영암군	영암읍	1035/282	1억8천	1억3천
무안군	일로읍	85/188	5천3백	3천

근린상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쌍암월계동	81/28	2억8천5백	1억8천5백
북구	용봉동	55/35	1억8천	1억1천7백
남구	봉선동	61/38	4억5천	3억1천5백
서구	치평동	192/292	2억7천	1억5천
	금호동	85/15	6천	3천2백
동구	계림동	90/12	1억8천	4천4백
	충장로	6/3	1억	7천
목포시	옥암동	45	3억	1억8천8백

주택(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건/대(㎡)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연산동	1035/234	1억8천8백	1억1천5백
	우산동	167/169	1억1천	7천8백
남구	석정동	304/155	8천1백	5천6백
서구	동천동	176/187	1억3천	신건
	화정동	137/87	8천8백	신건
	농성동	192/78	8천8백	4천8백
북구	중흥동	254/154	1억8천	1억3천4백
나주시	성북동	273/208	1억1천	6천1백
	금천면	985/272	5천8백	3천7백
영암군	영암읍동	749/210	3억1천4백	1억4천
	금호읍동	1305/140	5천4백	3천
무안군	운남면	413/123	5천	신건
장흥	장서	865/146	4천4백	3천
함평	함평	2415/170	2억2천	신건
곡성군	곡성읍	1385/409	1억7천	신건
영광군	홍농읍	1440/105	1억4천	신건
	군서면	514/74	2천	
장성군	북이면	805/308	5천8백	3천8백
함평군	손불	711/221	3천8백	2천2백
	대동읍고	1243/272	1억1천1백	6천2백

토지(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동신구	우산동	답	1559	2억	신건	절대농지
	쌍암동	대지	441	4억8천5백	2억3천	중심상업
	월계동	답	1491	1억8천	신건	한옥주거
	양동동	대지	155	3천8백	2천6백	주거지역
북구	용두동	답	1147	1억1천	7천7백	생산녹지
	신안동	대지	595	4억7천	2억8천	상업지역
	용두동	대지	417	5천	신건	도시계획도로
서구	풍암동	임야	5058	5천5백	2천4백	도시보전
	농성동	대지	55	1억	신건	상업지역주거
	진월동	전	320	1천8천	신건	상업지역주거
동구	지산동	임야	16530	1억9천8백	1억3천	문화보전지역
나주시	문평	임야	54650	6천7백	신건	보존녹지
	봉황면	전	1573	3천1백	1천7백	생산관리
	산포면	답	2585	8천	5천8백	농림지역
		답	1937	6천4백	4천5백	농림지역
	남평읍	전	398	8천	6천5백	도시지역
담양군	담양읍	답	4636	10억2천	7억4천	2종일반주거
	월산면	답	3005	4천	2천8백	농림
	대덕면	임야	9499	1억5천	7천	농림
	금성면	잡종지	595	4천5백		계획관리
		임야	10512	3천1백		계획관리
화순군	도암면	전	1823	1천1백		소하천구역
	동복	임야	59608	6천4백	3천8백	보존산지 •
	동면	전 답 대	1799	1천1백	신건	계획관리
	도곡면	임야	5308	3억8천		준보전산지
영암군	시종면	임야,전	6264	9천8백	6천4백	생산관리
	군서면	임야	3723	4천7백	3천8백	계획관리
	군서면	답	636	3천1백	2천2백	농림지역
	도포면	답	4607	4천1백		농림지역
	신북면	답	2975	2천	8백	농림지역
장성군	장성읍	답	1782	5억5천		도시지역
	삼계면	답	2648	7천4백		도시지역
	동화면	대지	3399	1억4천	신건	도시지역
	황룡면	답	5469	5천8백	3천7백	농림지역
함평군	대동면	답	3031	3천	신건	농림
	신광면	답	1903	1천4백	8백만원	농림지역
	엄다면	잡종지	5553	3천8백		보전관리
		답	4759	5천7백		농림
무안군	삼향면	임야	44649	4억	신건	농림
	청계면	전	3038	3천8백	신건	농림
	일로읍	임야	5134	1억1천	8천2백	1종전주거
	현경면	답	2142	4천7백	3천2백	자연취락
곡성군	입면	답	5114	5천	4천5백	계획관리
	겸면	답	2056	2천8백	1천6백	농림
	석곡리	잡종(자원)	2623/373	1억8천4백	1억2천	계획관리
	목사리	답	3722	4천4백	2천6백	생산관리
	삼기면	답	1424	1천7백	1천2백	농림지역
	입면	답	5114	6천1백	4천2백	계획관리

농가시설

지역	소재지	지목	면적(㎡)	감정가	최저가	비고
곡성군	고달면	목장	4286	2억8천	9천8백	창고
나주군	금산면	목장	4936/2467	3억1천	2억1천	목장
월평군	월평읍	축사	3477/1064	4천7백	2천1백	축사
영광군	홍농읍	축사	6284/2910	5억6천	2억9천	생산관리
함평군	금정면	축사	6695	8천1백	6천4백	보전관리

숙박시설(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주	북구	384/1026	5억5천	3억2천	
	광산구	980/1812	10억8천만원	11억1천8백	
	남구	508/1389	14억1천8백	5억	
목포시	북한동	11741/1327	11억7천4백	4억2백	관리지역
구례군	구례읍	2025/1490	7억1천	5억	
순천시	장천동	353/585	4억8백	2억8천8백	
여수시	돌산읍	377/1042	8억8천	3억8천	상업지역
화순군	도곡면	2042/2786	10억4천5백	8억7천1백	

원룸(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소촌동	374/643	4억8천	신건	원룸
	월계동	268/620	4억4천		원룸
북구	두암동	212/308	2억2천8백	1억6천	
동구	동명동	178/477	3억4천	1억5천	2종일반주거
	지산동	152/436	3억		

빌라(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광산구	신가동(그린)	84/75	1억2천	8천1백
동구	지산동	111/167	2억4천	1억8천5백
북구	두암동(홍은)	66/30	1억1천	7천7백
남구	방림동원빌	54/45	4천5백	

공장(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토/건(㎡)	감정가	최저가	비고
광산구	용동	4207/5113	18억8천8백	13억8천	공업지역
	하남동	1738/1024	8억8천	5억4천8백	공업지역
	복룡	1652/1049	7억6천	5억	공업지역
북구	영산동	1186/1083	8억8천	4억7천7백	공업지역
	오선동	1852/894	7억8천		신건
	우산동	717/527	4억5천		신건

아파트(광주·전남 지역)

지역	소재지	아파트명	토/건(㎡)	감정가	최저가
광주	운남동	운남주공	53/35	8천4백	5천9백
광산구	월계동	모아	95/53	1억2천8백	8천4백
	신창동	5차호반	84/49	1억4천	9천8백
남구		봉숭스윗트	169/78	4천2천	2억8천
	송하동	월드타운	127/54	1억8천	1억1천
	진월동	고운하이	84/42	1억7천	1억1천8백
		삼다에코빌	81/39	1억4천	1억
		삼익세라믹	162/65	1억9천	
동구		신일유토빌리티	159/91	3억7천	2억5천7백
	학동	아남	137/50	1억8천	
북구	문흥동	중흥	59/32	7천1백	5천1백
	양산동	일신	59/31	6천5백	4천5백
		영무에밭	84/43	1억2천	8천4백
	운암동	남양휴튼	111/72	1억9천	1억3천3백
서구	쌍촌동	사일	50/26	5천2백	3천6백
		금호월드	164/75	3억	2억1천
		금호한국타운빌	84/44	1억4천	신건
나주시		삼성	59/26	4천9백	3천3백
화순군	화순읍	대림그린	59/22	3천8백	2천7백
목포시		삼둥임우리치	164/92	4억5천	2억2천
무안군	교촌리	석호기림	112/84	1억3천5백	7천5백

선박 가능합니다